

'영산강·섬진강 환경문예' 수상작 선정

시·구효경, 사진·박호현씨 등 '대상' 영예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개최
한 '제5회 영산
강·섬진강 사
랑 환경문예작
품 공모전'에
서 구효경(전
남 과학대)의
시 '해 저무는 영산포'가 영예의 대상으로 뽑혔다.



김기범(육군제 31사단 무안대대)상병의 '나의 삶, 나의 환경'은 산문 분야에서, 박호현(순천시)씨의 '자연의 정다운 친구들<사진>'은 사진 분야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이번 공모전에서 시 25편, 산문 25편, 사진 29점으로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상작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yeongsan.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다음달 5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수상작 전시회와 함께 열린다.

/김정기자 jjnews@kwangju.co.kr

동신대 차정환 교수 개교 20주년 사진전



차 교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문화박물관 5층 전시관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재직하면서 카메라에 담아온, 동신대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한 사진 70여점을 모아 선보인다.

차 교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학교에 머물면서 스케치하듯 기록한 작품들을 개교 20주년 기념해 사진전회를 갖는다.

차 교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학교에 머물면서 스케치하듯 기록한 작품들을 개교 20주년 기념전으로 열게 돼 대단히 기쁘다"면서 "이번 사진전을 통해 대학 구성원은 물론 동문 등 많은 이들이 오늘의 동신대를 회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KIA 내야수 흥세원 '4월 월간 MVP' 선정



KIA 내야수 흥세원이 프로야구 광주 기자단이 선정하고 '밝은안과21(월정 윤길중)'이 시상하는 4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 흥세원은 4월 한달동안 67타수 18안타 4홈런 13타점 타율 0.269를 기록하며 팀 공격의 선봉에 섰다. 시상금은 100만원이고, 흥세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만원을 기탁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윤재원씨 장남 세양군 김상형(전남대병원장)씨 장녀 수진영=27일(일) 낮 12시 서울시 청담동 브리마호텔 신관 3층 그랜드볼룸홀.

▲정태성(전남대 행정대학원)씨 장남 종식군 이현근(전남도 교육청 공보실)씨 장녀 우경양=27일(일) 오후 1시50분 상록회관 3층 무궁화홀.

▲이재호씨 장남 선행군(전남도 청 근무) 나종엽씨 차녀 소영(전남 도청 근무) 양=27일(일) 오후 1시 10분 갤러리아 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김경중씨 아들 현군 박영호(광주시 상수도시설 관리소장)씨 딸 효정양=27일(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상제리제웨딩홀 1층.

▲심언영씨 장남 성훈군 정사군

(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씨 장녀 소영양=27일(일) 오후 3시 KBS 신관 1층 공개홀.

▲이재희(동일상사 대표)씨 장남 기행군 한덕식씨 차녀 지연양=6월 2일(토) 오후 3시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 피토연 26일(토) 오후 5시 삼희식당 부페.

▲김영호(다나기업 대표)씨 장남 경두(동부건설)군 이옥남(전 전남대 사법대 교수)씨 차녀 유진(중앙종교사) 양=26일(토) 오전 11시30분 예별선례당컨벤션 2층 래번디홀.

▲김기영(KT건설) 대표이사)씨 장남 정훈군 이원희(광주일보 무안 주재기자)씨 차녀 리리양=26일(토) 낮 1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 회관 2층 웨딩홀.

▲진동택씨 장남 준(화순군 이양면 보건지소장)군 최희주(영광군 보건소장)씨 차녀 은영(송정 서초교 교사) 양=26일(토) 오전 11시50분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홀.

▲나창균씨 차남 종선군 손태열(영암군 건설재난과장)씨 딸 혜진양=26일(토) 오전 11시50분 광주에 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무소 인

전남체육관 출신 師弟 3대

<사진>

위기의 '태권 한국' 구하다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켜내 기쁨이나."

3대에 걸친 전남체육관 출신 스승과 제자들이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무너진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켜내 화제다.

지난 22일 막을 내린 제18회(여자 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감독을 맡아 종합우승을 이끈 박경환(57) 전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전남체육관 출신들의 활약이 이번 우승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베이징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총 16체급(남녀 8체급씩)에 출전, 남자가 금1, 은1, 동4를 획득했고, 여자는 금3, 은3을 거둬들여 남녀 모두 대회 종합우승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번 선수단 가운데 박 감독을 비롯한 왕광연 남자부 코치(43·광주체육고 코치)와 금메달 리스트 최연호(27·국군체육부대), 정진희(22·조선대 3년) 등 주축팀원들 모두가

전남체육관 출신들이다.

박 감독은 왕 코치의 스승이고, 최연호와 정진희는 왕 코치의 아제자로, 이들은 수십년째 끈끈한 사제의 정을 나누고 있다.

왕 코치는 초등학교 3학년때 전남체육관을 찾아온 최연호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한다. 태권도를 하기 위해 너무 좋은 체격조건과 균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

왕 코치의 조련 아래 태권 실력을 키워낸 최연호는 조선대로 진학하면서 한국 태권도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이번 대회에서도 핀급에 출전해 대회 3회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세웠다.

특히 최연호가 따낸 금메달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남자대표팀으로 유일한 것으로 태권도 종주국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자 밴텀급에 출전한 정진희도 지난 18일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한국 여자



왼쪽부터 박경환 전남태권도협회 전무, 최연호·정진희 선수, 왕광연 코치.

박경환 감독·왕광연 코치, 최연호·정진희 선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팀 종합우승 이끌어

태권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정진희는 8강전까지 3경기 연속 '점수차 승리(7점차 이상 벌어지면 그대로 승부가 끝나는 경우)'를 따낸 뒤 결승에서 대만의 청위수안을 상대로 멋진 받아차기를 선보이며 6·4로 우승했다.

초등학교 4학년때 왕 코치의 제자로 태권도

표로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그 기량을 맘껏 뽐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사수한 전남체육관은 44년 전통을 자랑하는 호남 최고 명문 도장이다.

전남체육관은 지난 63년 개관 이후 수많은 태권도인을 배출했고, 지금도 광주·전남에만 전남체육관의 이름이 걸린 도장이 60여 곳에 이른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 총동창회 '2007 용봉인 영예대상'

이기홍·양재봉·송기숙씨 선정

전남대 총동창회(회장 김국웅)는 24일 '2007 용봉인 영예대상' 수상자로 이기홍(57년 법대 졸·변호사)·양재봉(55년 경영대 졸·대신증권 회장)·송기숙(61년 인문대 졸·소설가) 등문을, 특별상 수상자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교수단을 각각 선정했다.

총동창회는 전남대 출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을 대상으로 매년 '용봉인 영예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이기홍 동문은 제 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한일회담과 월남파병반대시위, 3선 개헌 반대투쟁, 유신철폐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야수습위원회 등으로 활동하여 나라의 민주현정수호와 법률문화 창달,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밝혔다.

양재봉 동문은 대신그룹을 전문금융그룹으로 성장시켜 한국금융업 발전에 기여했고, 송촌문화재단을 설립해 17년 동안 20여억원의 장학금과 25억여원의 학술지원연구비를 지원



<이기홍씨>

<양재봉씨>

<송기숙씨>

해 지역과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송기숙 동문은 1978년 모교 동료 교수 10명과 함께 유신정권에 맞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소설가로서 '녹두장군' 등을 집필해 현대문학발전에 기여했다.

총동창회는 이와 특별상 수상자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교수단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언 교수단은 송기숙 동문을 비롯해 김두진(현 국민대 교수)·김정수·김현곤·명노근(2000년 작고)·배영남(2003년 작고)·이석연·이방기(2007년 작고)·이홍길(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안진오·홍승기 교수들이었다.

시상식은 전남대 개교 5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6월 8일 오전 11시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아빠가 그럴 수가..."

오프라, 아버지 책 집필 소식에 '기절할 뻔'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아버지가 자신에 관한 책을 쓸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절할 만큼 놀랐다"고 말했다.

윈프리는 22일자 뉴욕 데일리 뉴스에 "정신을 끊으리겠다"면서 "망연자실까지는 아니지만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고 말했다. 윈프리는 신문사측이 아버지 베너 윈프리의 책 저술에 관해 묻는 전화를 해온다는 비서의 말을 전해듣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윈프리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그렇다'는 말을 듣고 그가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윈프리는 데일리 뉴스에 몇 달 전 함께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만난 게 마지막이었지만 아버지와 자주 통화하며 관계가 좋다면서 "아버지가 예의로도 알려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너 윈프리가 쓰고 있는 책 제목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될 것이라고 데일리 뉴스는 전했다.

개그맨 김현기, 日 여성과 결혼

개그맨 김현기(36)가 아역배우 출신 일본인 여성과 화족을 밝혔다.

김현기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한 살 연하의 와타나베 고토미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김현기의 KBS 개그맨 공채 동기인 박준형의 사회로 진행된 예식의 주례는 김동래 인덕대 교수수가 맡았으며, 축가는 성시경이 맡았다.

▲고령신씨 전남서부·광주 종회

(회장 신장식) 정기총회=27일(일)

오전 10시 광덕고 회의실. 019-636-

3366

▲아주일씨 광주화수회 정기총회

및 아유회=27일(일) 완도수목원.

오전 8시 구 도청앞 출발.

▲향우회

▲재광 화순군 향우회 정기총회

=26일(토) 오전 10시30분 호텔 무

등파크 4층 다이아몬드홀. 226-

0011

▲재광 원도군 금당면 향우회(회장 허재호) 정기총회 및 화합의 한마당=6월 2일(토) 오전 10시 구동체육관.

011-603-9150,